

## 장발장은행 제117번째 대출 시행, 15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3,395만원

- 2015년 2월 25일 문을 연 장발장은행.
- **제117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 위기에 놓인 **현대판 장발장 15명에게 3,395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
- 지금까지 117차에 걸쳐 1,365명의 시민께 2,390,455,000원을 대출 중.
-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시민의 후원으로 만들어져. 2024년 6월 24일(오후 19시 기준) 16,185명의 개인, 단체, 교회 등에서 1,706,316,659원(이자 포함)의 성금 이어져.

1.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발장은행은 6월 24일 제117차 대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5명의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3,395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장발장은행은 이번 대출 심사를 통해 강OO(충북, 85년생)에게 50만원, 곽OO(전남, 81년생)에게 300만원, 권OO(충남, 92년생)에게 300만원, 권OO(경북, 74년생)에게 100만원, 김OO(광주, 81년생)에게 200만원, 김OO(강원, 94년생)에게 295만원, 김OO(경북, 96년생)에게 300만원, 문OO(충남, 2000년생)에게 250만원, 민OO(대구, 83년생)에게 200만원, 박OO(인천, 77년생)에게 300만원, 송OO(경기, 2002년생)에게 200만원, 이OO(전남, 89년생)에게 300만원, 이OO(대전, 99년생)에게 300만원, 이OO(경남, 95년생)에게 100만원, 조OO(충남 69년생)에게 200만원 등 모두 15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3,395만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3. 이날 심사에는 한정숙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민갑룡 대출심사위원(전 경찰청장), 서보학 대출심사위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대출심사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우 대출심사위원(변호사)이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다음 대출 심사위원회 회의(제118차)는 2024년 7월 29일(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장발장은행은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 개혁으로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